

너는 날 믿어?

그에 대한 대답이 긍정으로 나올 리가 없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너 또한 그럴겠지. 상대를 믿고 그에 기댄다는 것. 저희들에게 그토록 어색한 단어는 없었다.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감정을 쏟지 않고, 애초에 감정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겠지만. 언제 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들고 있는 검으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없었다. 그를 향해 빠르게 몸을 돌리고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제 검을 휘두르는 것. 그게 끝이었다.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애초에 마음을 준 것도 아니었으니.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향해 구애를 펼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자주 봤었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런 말을 쉽게 내뱉는건지. 본인이 그 감정을 자각하고 있는지. 애초에 자신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점 투성이였다. 그를 받아주며 환하게 웃는 한 쌍을 보았다. 참 멍청한 애들이네. 그렇게 짧은 감상을 내뱉곤 몸을 일으켰다.

“체크메이트.”

“...아.”

“가끔 보면 너는 참 대단해.”

이렇게도 발전이 없는 건. 그 말을 들었다면 다른 이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제게 따지거나, 혹은 되도 않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겠지만. 눈앞의 상대는 마치 안부인사를 들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저 판 밖으로 나간 말을 다시 위로 올려 정리할 뿐이었다. 턱을 괴며 그가 하는 행세를 가만 바라보았다. 별 말이 없고, 별 표정도 없고, 별 반응도 없다. 말이 차례대로 올라가자 저를 보며 시작하라는 눈짓을 쫓다. 그게 끝이지.

그랑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여정이 끝나고, 제 머릿속을 뒤집은 꿈이 한 차례 가라앉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빌마가 단장이라는 사실도. 지나가다가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도. 싹 다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정을 다시 행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일상을 보내는 중,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와 상종하는 일정은 이것을 제외하곤 없었다. 체스를 혼자 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랑 게임을 한다고 하는 것보단 가르친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 적은 없었다. 몇 년 전 아나스타시아가 대련을 청해 몇 번 해주기는 했지만 그걸 가르친다고 표현하긴 애매했다. 애초에 제가 잘난 부류도 몇 없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봤자 평균에 머무를 뿐인데 가르친다는 게 이상했고. 애초에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수락해야하고. 이 단계를 넘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딱 한 명이었다.

남의 감정에 귀찮을 정도로 신경쓰지도 않고. 막 달라붙지도 않고. 적절하게 말을 꺼내고 적절하게 목소리를 거두는 사람. 나를 꽤찮았다. 계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어있었지만 계약이 없더라도 성향상 비슷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언제나 그랬고. 그가 말한 조건보다는 제 쪽이 말한 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이었으니.

애초에 체스를 배워서 어디에 쓰겠는가? 단순히 무료함을 달랠 뿐이지.

“ 세레나. ”

저를 응시하는 눈빛을 마주하자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최근 들어 그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기억이 연신 떠올랐다. 쓸데없이 좋은 기억력은 이럴 때마다 문제였다. 그의 연보라색 눈빛보다는 다른 색채가 더 어울린다는 사실을. 쓸모없는 감상이었지. 이를 포함해 그를 마주할 때마다 매일같이 색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밝고 햇살같은 눈빛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다면, 이전에는 여정 중 그를 찾아갔었던 기억이 떠올랐었다.

다른 사람을 굳이 찾는 편은 아니었다. 위험한 상황이 처하거나 제게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는 예외였다. 맺은 계약때문인지 몰라도 밤마다 그를 찾았던 장면이 그려졌다. 회상했을 때 어떤 감상이 느껴지냐고 묻는다면, 더러웠다. 왜 저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되도않는 잡담을 그의 앞에서 꺼냈는지. 능력을 써서 몽롱해진 제 모습이 꼴사나웠다. 그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그래, 팔찌도 있었다. 제가 검정색의 룩을 건네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팔찌를 만들어 제게 주었다. 정작 그 팔찌가 끊어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받았으니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말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팔찌를 만들어야 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의미를 부여하며 더욱 파고드는 제 머리를 감싸쥐었었다. 지가 해보고 싶었겠지. 폼이나 재고 싶었나.

넌 나를 믿어?

언제 한 번 그렇게 물었었다. 돌아온 대답은 뭐였지. 조금 믿는다고 했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긍정했을까.

“ ...조세핀. ”

“ 왜. ”

“ 사람을 불러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버릇이야? ”

그는 입이 험하지 않았다. 직설적이지 않았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할 때가 잦았지만. 그의 화법은 차분하면서도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게 특징이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도 느껴졌지만. 지금처럼 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데에도 효율적이었지. 말없이 폰을 들어 앞에 놓았다.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다양하고 빨리 잊고 싶은 기억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상대의 기분이나 반응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속부터 팍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상관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으면서 왜 관심도 없는 상대의 기분을 알아채려고 하는건지.

“ 여기까지 하자. ”

“ ...왜? ”

“ 질렸으니까. ”

“ 게임에? ”

“ 너에게. ”

평소보다 더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음에도 그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몸을 일으켜서 간간하다는 한 단어를 뱉고는 판을 정리할 뿐. 들리게끔 혀를 차도 그는 묵묵무답이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즐기는 타입이라거나 원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저, 그의 반응은 다른 이들보다 궁금했으니까. 몸을 일으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찌다 마주친 그에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무어라 중얼거렸고,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해가 저 편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딱히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제가 내걸었던 조건 때문이겠지. 체스를 가르쳐주는 대신으로 그가 들어줘야 하는 조건. 찾아갈 때도 안 찾아갈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전자를 택할 예정이었다. 홀로 눕기에는 뭔가 거슬리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짹짹 채울테니까.